

# 학령전기 아동의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거부적 양육태도

조규영<sup>1</sup> · 어용숙<sup>2</sup> · 안민순<sup>3</sup>

<sup>1</sup>마산대학 간호과 조교수, <sup>2</sup>춘해보건대학 간호과 조교수, <sup>3</sup>마산대학 간호과 교수

## Children's Behavior Problems, Child-rearing Stress and Rejective Parenting Attitude in Preschool Children's Mothers

Cho, Gyoo-Yeong<sup>1</sup> · Eo, Yong-Sook<sup>2</sup> · Ahn, Min-Soon<sup>3</sup>

<sup>1</sup>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Masan College

<sup>2</sup>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oonhae College of Health Science, Ulsan

<sup>3</sup>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Masan College, Masa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of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nd child-rearing stress to rejective parenting attitude in mothers. **Methods:** Study participants were 595 mothers who had children aged 3 to 5 who attended one of 10 kindergartens or infant schools in M or B Cities. The instruments used for this study were a self-report questionnaire, CBCL (Child Behavior Check List), PARQ (Parenting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and PSI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by Abidin). Regression analysis was the statistical method used for data analysis. **Results:** The factors associated with rejective parenting attitude were child-rearing stress, birth order, mother's education, the major caregiver in the family, and the type of family. These factors explained 33.7% of rejective parenting attitude. **Conclusion:** The findings indicate a need to develop and provide parenting programs to reduce child-rearing stress in mothers.

**Key words:** Child behavior, Stress, Parenting behavior

##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아동은 가정, 또래 및 학교로 구성된 환경의 영향을 받는 동시에 자신의 환경을 스스로 조절하며 자신들의 환경에 적응해 간다. 이러한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아동은 사회적으로 부적응적인 문제행동을 보일 수 있다(Ha, 2003). 학령전기는 신체성장률은 감소하지만 운동능력, 인지능력, 언어능력,

사회성 등이 두드러지게 발달하는 등 인간의 기본 특성이 결정되는 시기, 즉 인간행동의 형성기라고 할 수 있다(Kim et al., 2007). 일찍이 Freud는 인간의 기본적 인성은 유아기와 아동기 초기에 그 기초가 형성된다고 보고 어느 시기보다 이 시기를 가장 중시하고 있으며, 부모와의 관계, 특히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성격형성의 중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Kim & Kim, 2007). 따라서 학령전기는 정서적, 심리적 발달에서 중요한 시기로 특히, 영유아기보다 더 다양한 상황에서 어머니와 상호작용을 하게

주요어 : 문제행동, 양육스트레스, 거부적 양육태도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Eo, Yong Sook

Department of Nursing, Choonhae College of Health Science, 72-10 Gokcheon-ri, Ungchon-myeon, Ulju-gun, Ulsan 689-784, Korea  
Tel: 82-52-270-0186 Fax: 82-52-270-0189 E-mail: nursinge@ch.ac.kr

투고일: 2010년 3월 16일 1차수정: 2010년 4월 1일 2차수정: 2010년 4월 5일 게재확정일: 2010년 4월 14일

된다(Tanaka, 2001). 이 시기에 어머니가 아동의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 압력, 위협 등의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게 되면 아동에게는 문제행동이 나타나 어머니들이 자녀양육에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다(Carey, 1997; Tanaka, 2001).

아동의 문제행동은 성격 부조화나 적응상의 어려움을 내포하기 때문에 가족생활과 또래관계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학령전기는 급격한 정서, 인지, 행동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 시기에 정상행동과 문제행동을 구분하는 일은 쉽지 않으나 일반 아동 중 3-6%는 중재가 필요한 수준의 문제행동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Achenbach & Edelbrock, 1981). 자율성과 자기 주도적 성향이 강한 학령전기 아동은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Kim & Lee, 2004), 이와 같은 적응상의 어려움은 지속적인 특성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도움이 없을 경우 학령기와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Lee, Hur, & Kim, 2005).

한편, 현대사회의 급속한 경제적 변화와 여성의 취업률 증가, 핵가족화는 부모 역할의 변화를 가져왔는데(Lee, 2007), 자녀 양육에 따른 부모의 책임 및 역할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실정이다(Jung, 2004). 부모가 양육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면 심리적인 부담감은 물론, 자녀에 대한 태도,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적응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양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약화시켜 역기능적이고 부당한 양육 행동을 하게 된다(Abidin, 1990).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이나 특성, 부모자신과 배우자의 특성, 주변의 다양한 사회적 지지와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등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Dumas & LaFreniere, 1993). 또한 이러한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양육태도는 거부적으로 나타나(Lee, Y. H. & Lee, J. I., 2008), 어머니 자신의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아동의 행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의 바람직한 성장발달을 위해 양육하고 가르치는 방식으로(Fishbein & Aizen, 1975), 가정 내에서 자녀의 성격, 태도, 행동, 가치체계 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태도를 말한다(Kim, 1974).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의 행동과 요구를 비판 없이 수용 또는 거부하는가에 따라 수용-거부적 차원과 부모와 자녀의 의지 복종 관계에 따라 지배-복종의 차원으로 구분하며(Shin, 2003), Schaefer (1959)는 애정-거부 축과 자율-통제의 축을 기초로 애정적-자

율적 양육태도, 애정적-통제적 양육태도, 거부적-자율적 양육태도, 거부적-통제적 양육태도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특히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을 보이지 않고, 행동에 대해 신체적, 언어적 및 심리적인 처벌을 가하는 미성숙한 양육태도로,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동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초조하며 산만한 활동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 Kim, 2007). Webster-Stratton과 Herbert (1994)는 아동이 행동문제를 나타내게 되는 주원인은 부모의 양육방식에 있다고 하였으며, 부모가 거부적, 통제적인 경우 아동은 불안하고, 공격적, 반항적이 된다고 하였다(Park, 1996).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의 성장과정, 성격뿐만 아니라 가정의 사회적 지위, 부모의 연령, 교육수준 등과 같은 부모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아동의 성별, 연령과 같은 아동 특성 및 핵가족과 같은 가족형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다(Chung & Kim, 2004; Jung & Roh, 2005; Lee, J. L. & Lee, J. I., 2008). 또한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부모의 심리적 특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J. L. & Lee, J. I., 2008). 이와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아동의 문제행동과 부모 중 특히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포함하여 거부적 양육태도와의 관련성을 함께 본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령전기 아동의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거부적 양육태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어머니의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돕기 위한 방안으로 아동의 문제행동 개선과 양육스트레스 감소가 거부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침을 검증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전기 아동의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거부적 양육태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전기 아동의 문제행동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거부적 양육태도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가족 및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거부적 양육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학령전기 아동의 문제행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거부적 양육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학령전기 아동의 문제행동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거부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 연구 방법

###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아동의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거부적 양육태도의 정도를 파악하고 상관성을 확인하며 아동의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거부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 연구 대상

본 연구의 표적 모집단은 학령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이며, 근접모집단은 B시와 M시에 소재한 12개의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을 둔 어머니이었다. 자료 수집은 2008년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시하였고, 자료 수집 방법은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직접 연구 장소를 방문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편의 표집에 의해 추출하였으며, 표본 수는 신뢰수준 95%에서 오차한계 0.15로 하였을 때 544명이었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620명을 목표로 하였다.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으며, 설문지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익명이 보장됨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은 경우만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620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에 응답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충분하지 못한 25부를 제외한 595명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 연구 도구

#### 아동의 문제행동

Achenbac와 Eldelbrock (1983)의 유아용 아동행동조사표(Child Behavior Check List, CBCL)를 Choi (1991)의 연구에서 활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0점)에서 '매우 또는 자주 그렇다'(2점)의 100문항,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Choi (199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5$ 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98$ 로 나타났다.

#### 양육 스트레스

Abidin (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PSI/SF)을 본 연구자가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부모용 자가 보고식 질문지로서 총 36문항 3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각 영역에는 '부모의 고통' 영역의 12문항, '부모-자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영역의 12문항, '아동의 까다로운 특성' 영역의 12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점수를 부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94$ 로 나타났다.

#### 거부적 양육태도

Rohner (1984)에 의해 개발된 부모 수용-거부 질문지(Parenting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의 아동용을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자녀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을 자가보고 형식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는 것을 어머니가 자녀에게 행한 양육태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Rohner (1984)에 의해 개발당시 질문지는 총 60문항으로 수용 영역 20문항, 거부영역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거부적 양육태도에 해당하는 40문항을 이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4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거부적 양육태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거부적 양육태도 문항에 대한 내적 일관성 즉 Cronbach's  $\alpha=.72-.87$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92$ 였다.

####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아동 문제행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거부적 양육태도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 양육스트레스 및 거부적 양육태도는 t-test, ANOVA 및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아동의 문제행동, 양육스트레스 및 거부적 양육태도와의 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로 분석하였으며, 아동의 문제행동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거부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 연구 결과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특성으로 아동의 성별은 남아 52.4%, 여아 47.6%였고, 연령은 3세 아동이 53.9%, 4세 아동이 24.5%, 5세 아동이 21.5%로 3세 아동이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출생순위는 첫째가 51.6%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연령은 35세 미만이 69.6%였으며, 평균연령은 33.70세이었고, 학력은 고졸 이하가 52.3%이었다. 전업주부가 62.0%이었으며, 가족의 월수입은 201만원에서 500만원 이하가 53.9%이었다. 주 양육자는 어머니가

66.7%였고 할머니, 혹은 외할머니, 돌봐주시는 분 등이 33.3%로 나타났다. 가족의 형태는 핵가족이 72.6%로 과반수가 부부 중심의 2세대 가족들이었다(Table 1).

**아동의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거부적 양육태도**

본 연구에서 아동의 문제행동은 72.74점이었으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평점 평균 2.18점이었고 영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동의 어려운 특성이 2.24점으로 가장 높고, 부모의 고통이 2.23점, 부모와 아동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2.05점 순이었다.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의 평균평점은 2.27점이었었다(Table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 양육스트레스 및 거부적 양육태도**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 양육스트레스 및 거부적 양육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의 문제행동은 아동의 성별( $t=1.998, p=.046$ ), 연령( $F=48.480, p=.001$ ), 출생순서( $F=5.986, p=.003$ ), 어머니의 학력( $t=-5.108, p=.001$ ), 어머니의 직업( $t=-5.061, p=.001$ ), 가족의 월수입( $F=8.697, p=.001$ ), 주양육자( $t=-8.426, p=.001$ ), 가족형태( $t=-5.438, p=.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어

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직업( $t=-2.374, p=.018$ ), 월수입( $F=14.840, p=.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출생순서( $F=4.373, p=.013$ ), 어머니의 학력( $t=-2.706, p=.007$ ), 어머니의 직업( $t=3.183, p=.002$ ), 주양육자( $t=3.702, p=.001$ ), 가족형태( $t=5.828, p=.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3).

**아동의 문제행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거부적 양육태도 간의 상관관계**

아동의 문제행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거부적 양육태도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아동의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하부요인인 부모의 고통과( $r=-.170, p=.001$ ), 거부적 양육태도( $r=-.102, p=.013$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문제행동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지며 거부적 양육태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양육스트레스 하부요인인 부모의 고통( $r=.462, p=.001$ ), 부모와 아동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r=.285, p=.001$ ), 아동의 어려운 특성( $r=.123, p=.003$ ) 모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상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거부적 양육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아동의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거부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측변인인 아동의 문제행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일반적 특성이 대상자의 거부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의 출생순위, 어머니의 학력, 직업, 주양육자, 가족형태, 아동의 문제행동,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의 33.7%를 설명하였다. 거부적 양육태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양육스트레스 하부요인 중 부모의 고통( $\beta=0.464$ )이었으며, 그 다음이 아동의 어려운 특성( $\beta=-0.245$ ), 주양육자( $\beta=-0.173$ ),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595)

| Characteristics               | Categories           | n (%)        |            |
|-------------------------------|----------------------|--------------|------------|
| Child                         | Gender               | Male         | 312 (52.4) |
|                               |                      | Female       | 283 (47.6) |
|                               | Age                  | 3 yr         | 321 (53.9) |
|                               |                      | 4 yr         | 146 (24.5) |
|                               |                      | 5 yr         | 128 (21.5) |
| Birth order                   | 1st                  | 307 (51.6)   |            |
|                               | 2nd                  | 209 (35.1)   |            |
|                               | 3rd                  | 79 (13.3)    |            |
| Mother                        | Age (yr)             | Less than 35 | 414 (69.6) |
|                               |                      | 35 or over   | 181 (30.4) |
| Education                     | High school or below | 311 (52.3)   |            |
|                               | University or over   | 277 (46.6)   |            |
| Occupation                    | No                   | 369 (62.0)   |            |
|                               | Yes                  | 226 (38.0)   |            |
| Family incomes (10,000/month) | ≤200                 | 202 (33.9)   |            |
|                               | 201-500              | 321 (53.9)   |            |
|                               | ≥501                 | 72 (12.1)    |            |
| Major care giver              | Mother               | 397 (66.7)   |            |
|                               | Grandmother          | 198 (33.3)   |            |
| Type of family                | Nuclear              | 432 (72.6)   |            |
|                               | Extended             | 163 (27.4)   |            |

Table 2. Children's Behavior Problems, Child-rearing Stress and Rejective Parenting Attitude (N=595)

| Variable                     | Mean  | SD    | Min | Max    |
|------------------------------|-------|-------|-----|--------|
| Children's behavior problems | 72.74 | 42.49 | 0   | 156.00 |
| Child-rearing stress         | 2.18  | 0.64  | 1   | 3.69   |
| Parent distress              | 2.23  | 0.74  | 1   | 3.92   |
| Dysfunctional interaction    | 2.05  | 0.73  | 1   | 3.75   |
| Difficult child              | 2.24  | 0.73  | 1   | 3.93   |
| Rejective parenting attitude | 2.27  | 0.56  | 1   | 3.70   |

**Table 3.** Children's Behavior Problems, Child-rearing Stress and Rejective Parenting Attitud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595)

| Variables                    | Children's behavior problems |               | Child-rearing stress |               | Rejective parenting attitude |               |
|------------------------------|------------------------------|---------------|----------------------|---------------|------------------------------|---------------|
|                              | M (SD)                       | t or F (p)    | M (SD)               | t or F (p)    | M (SD)                       | t or F (p)    |
| Gender                       |                              | 1.998 (.046)  |                      | -1.905 (.057) |                              | -1.530 (.878) |
| Male                         | 75.96 (43.49)                |               | 66.61 (11.65)        |               | 30.78 (5.24)                 |               |
| Female                       | 69.03 (41.08)                |               | 66.79 (12.89)        |               | 31.60 (5.67)                 |               |
| Age                          |                              |               |                      |               |                              |               |
| 3 yr <sup>a</sup>            | 58.92 (40.09)                | 48.480 (.001) | 77.04 (20.95)        | 1.052 (.350)  | 92.33 (18.69)                | 2.525 (.081)  |
| 4 yr <sup>b</sup>            | 81.01 (41.15)                | a<b<c         | 79.65 (24.84)        |               | 90.14 (24.16)                |               |
| 5 yr <sup>c</sup>            | 97.74 (35.49)                |               | 79.91 (25.09)        |               | 87.10 (28.25)                |               |
| Birth order                  |                              |               |                      |               |                              |               |
| 1st <sup>a</sup>             | 72.38 (41.79)                | 5.986 (.003)  | 77.28 (22.92)        | 0.627 (.535)  | 92.55 (22.60)                | 4.373 (.013)  |
| 2nd <sup>b</sup>             | 67.69 (43.06)                | c>a,b         | 79.45 (21.88)        |               | 90.35 (21.87)                | a>c           |
| 3rd <sup>c</sup>             | 86.91 (40.80)                |               | 79.19 (25.20)        |               | 84.24 (22.63)                |               |
| Mother's age                 |                              |               |                      |               |                              |               |
| ≤34                          | 73.18 (42.53)                | 0.447 (.655)  | 77.84 (21.67)        | -0.684 (.494) | 89.99 (23.14)                | 0.448 (.260)  |
| ≥35                          | 71.49 (42.40)                |               | 79.33 (25.52)        |               | 92.24 (20.85)                |               |
| Mother's level of education  |                              |               |                      |               |                              |               |
| Below high school            | 63.67 (40.38)                | -5.108 (.001) | 77.46 (20.80)        | -1.505 (.133) | 88.64 (21.89)                | -2.706 (.007) |
| Over college                 | 81.12 (42.17)                |               | 80.29 (24.36)        |               | 93.63 (22.72)                |               |
| Mother's occupation          |                              |               |                      |               |                              |               |
| No                           | 65.91 (41.90)                | -5.061 (.001) | 76.52 (21.88)        | -2.374 (.018) | 93.05 (20.64)                | 3.183 (.002)  |
| Yes                          | 83.70 (41.13)                |               | 81.20 (24.25)        |               | 86.79 (24.75)                |               |
| Family income (10,000/month) |                              |               |                      |               |                              |               |
| ≤200 <sup>a</sup>            | 69.52 (39.16)                | 8.697 (.001)  | 79.90 (21.21)        | 14.840 (.001) | 89.38 (22.95)                | 1.618 (.199)  |
| 201-500 <sup>b</sup>         | 70.32 (43.95)                | a<c, b<c      | 74.64 (21.61)        | a<b<c         | 90.54 (21.70)                |               |
| ≥501 <sup>c</sup>            | 91.96 (40.13)                |               | 90.11 (28.27)        |               | 94.90 (24.29)                |               |
| Major caregiver              |                              |               |                      |               |                              |               |
| Mother                       | 63.11 (41.37)                | -8.426 (.001) | 76.99 (21.49)        | -1.876 (.061) | 93.32 (19.36)                | 3.702 (.001)  |
| Grandmother                  | 91.82 (38.01)                |               | 80.92 (25.35)        |               | 85.37 (26.98)                |               |
| Type of family               |                              |               |                      |               |                              |               |
| Nuclear                      | 66.98 (41.93)                | -5.438 (.001) | 77.88 (22.12)        | -0.676 (.500) | 94.13 (20.63)                | 5.828 (.001)  |
| Extended                     | 87.82 (40.27)                |               | 79.39 (24.90)        |               | 81.51 (24.57)                |               |

**Table 4.** Correlation between Children's Behavior Problems, Child-rearing Stress, and Rejective Parenting Attitude (N=595)

| Variables                          | CBP           | PD           | DI           | DC           |
|------------------------------------|---------------|--------------|--------------|--------------|
| Children's behavior problems (CBP) |               |              |              |              |
| Parent distress (PD)               | -.170 (.001)* |              |              |              |
| Dysfunctional interaction (DI)     | .070 (.086)   | .693 (.001)* |              |              |
| Difficult child (DC)               | -.044 (.287)  | .559 (.001)* | .705 (.001)* |              |
| Rejective parenting attitude (RPA) | -.102 (.013)* | .462 (.001)* | .285 (.001)* | .123 (.003)* |

\* $p < .05$ .

가족형태( $\beta = -0.173$ ), 부모와 아동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beta = 0.150$ ), 어머니의 학력( $\beta = 0.126$ ), 출생순위( $\beta = -0.088$ ) 순이었다(Table 5).

## 논 의

본 연구에서 아동의 문제행동은 72.74점으로 나타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Choi (1991)에서의 68.83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Chung과 Kim (2004)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문제행동이 평균평점 0.48점으로 본 연

구의 평균평점 0.73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문제행동의 연구결과는 일관성이 없지만 학령전기는 자율성과 솔선감이 발달하는 시기(Kim & Lee, 2004) 어느 발달단계보다 자기 주도적 성향이 증가하여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학령전기가 인간행동의 형성시기이며, 이때 발생하는 문제행동은 이후 발달단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Lee, Hur, & Kim, 2005) 학령전기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요인을 면밀히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평균평점 2.18점이었고 영역별로

**Table 5.** Influential Factors on Rejective Parenting Attitude (N=595)

| Variables                    | B      | Std. error | Beta   | t      | p    |
|------------------------------|--------|------------|--------|--------|------|
| Constant                     | 1.896  | 0.116      |        | 16.312 | .001 |
| Birth order                  | -0.069 | 0.027      | -0.088 | -2.571 | .010 |
| Mother's level of education  | 0.077  | 0.021      | 0.126  | 3.728  | .001 |
| Mother's occupation          | 0.007  | 0.015      | 0.017  | 0.445  | .657 |
| Major caregiver              | -0.109 | 0.027      | -0.173 | -4.034 | .001 |
| Type of family               | -0.217 | 0.049      | -0.173 | -4.471 | .001 |
| Children's behavior problems | 0.070  | 0.049      | 0.053  | 1.418  | .157 |
| Parent distress              | 0.353  | 0.038      | 0.464  | 9.367  | .001 |
| Dysfunctional interaction    | 0.119  | 0.045      | 0.150  | 2.624  | .009 |
| Difficult child              | -0.189 | 0.037      | -0.245 | -5.078 | .001 |

R<sup>2</sup>=34.7; ΔR<sup>2</sup>=33.7; F=34.530; Sig F=.001.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동의 어려운 특성이 2.24점으로 가장 높고, 부모의 고통이 2.23점, 부모와 아동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2.05점 순이었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와 같은 학령전기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Lee, J. L.와 Lee, J. I. (2008)의 3.29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Lee와 Seo (2007)의 1.28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자의 표집 지역과 표본에 따라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때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후 전국단위로 일반화가 가능한 표집방법을 통해 학령전기 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의 평균평점은 2.27점이었다. 이는 Lee, J. L.와 Lee, J. I. (2008)의 1.71점보다 높은 점수이었으며,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Lee, Y. H.과 Lee, J. I. (2008)의 1.73점보다 높았다.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출생순서, 어머니의 학력, 어머니의 직업, 주양육자, 가족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출생순서는 첫째가 92.55점으로 셋째 84.24점보다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F=4.373, p=.013). 이와 같은 결과는 형제가 있는 경우가 형제가 없는 경우보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공격적, 통제적으로 나타난 Lee, Y. H.과 Lee, J. I. (2008)의 연구 결과가 일부 일치하였다. 어머니의 학력은 대졸 이상이 93.63점으로 고졸 이하 88.64점보다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t=-2.706, p=.007).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거부 및 통제의 정도가 심하고 자녀를 과보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Lee (1984)의 연구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였다. 어머니의 직업은 없는 경우가 93.05점으로 직업이 있는 경우 86.79점보다 거부적 양육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183, p=.002). 이와 같은 결과는 Jung과 Roh (200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직업을 가진 어머니인 경우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지 못한 죄책감 등으로 인해 비교적 자녀에 대해 수용적이고 과보호적인 양육행위가 많아 거부적 양육행위가 비교적 낮다고 하였다. 그러나 Han과 Hong (2000)의 연구에서는 직업이 있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직업이 없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보다 지배적이고 거부적인 것으로 보고되어 상반된 결과가 있으므로 추후 어머니의 직업과 관련된 연구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주양육자가 어머니인 경우가 93.32점으로 할머니, 외할머니가 돌보는 경우 85.37점보다 거부적 양육행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t=3.702, p=.001).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94.13점으로 대가족 81.51점보다 거부적 양육행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t=5.823, p=.001). 핵가족의 경우 자녀의 양육은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이며 심지어는 조부모의 간섭까지도 부모의 동의가 없는 한 배제되게 된다. 따라서 핵가족 형태의 경우는 아동의 성장과정에 있어서 특히 부모의 역할이 절대적인 것이 된다.

학령전기 아동의 문제행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거부적 양육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결과 아동의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하부요인인 부모의 고통과(r=-.170, p=.001), 거부적 양육태도(r=-.102, p=.013)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문제행동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지며 거부적 양육태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자가 의도한 것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Kwon (2007)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문제행동이 많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으며, Chung과 Kim (2004)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문제행동이 많을수록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Lazarus와 Folkman (1984)에 의하면 같은 환경이라도 개인의 스트레스 지각 정도에 따라 스트레스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의 문제행동이 많은 것과 같은 양육문제에 직면하더라도 양육자에 따라 양육스트레스를 다르게 지각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면 어머니의 수용-거부적 양육태도가 높아지므로, 바람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형성을 위해서는 양육스트레스 지각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학령전기 아동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인 아동의 출생순위, 어머니의 학력, 직업, 주양육자, 가족형태와 아동의 문제행동, 양육스트레스를 다중 회귀분석 방법

으로 적용한 결과 이들 변수가 학령전기 아동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를 33.7% 설명하였다. 특히 거부적 양육태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양육스트레스 하부요인 중 부모의 고통이었으며( $\beta=0.464$ ), 그 다음이 아동의 어려운 특성( $\beta=-0.245$ ), 주양육자( $\beta=-0.173$ ), 가족형태( $\beta=-0.173$ ), 부모와 아동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beta=0.150$ ), 어머니의 학력( $\beta=0.126$ ), 출생순위( $\beta=-0.088$ ) 순이었다. 이는 영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Lee, Y. H.과 Lee, J. I. (2008)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수용-거부 양육태도를 예측하는 변인에서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인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아동의 문제행동은 거부적 양육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내현화, 외현화 행동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Chung과 Kim (2004)의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가 지각한 아동의 문제행동과 양육태도를 살펴본 본 연구와 아동이 지각한 문제행동과 부모의 양육방식을 보았던 연구 대상자가 다름에 의한 해석차이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상관관계를 본 결과에서는 아동의 문제행동과 거부적 양육태도가 약한 역상관계가 있었지만 양육스트레스와 함께 회귀식에 투입하였을 때는 거부적 양육태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추후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문제행동과 거부적 양육태도에 조절효과나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령전기 아동의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거부적 양육태도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들 요인이 학령전기 아동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부모 양육태도의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아동의 성별이 남자, 연령이 많은 아동, 출생순위가 셋째,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으면서 직업이 있는 경우와 월수입이 많고, 주양육자가 할머니이고 확대가족에서 문제행동이 많았으며, 직업이 있는 어머니와 월수입이 많은 집단에서 양육스트레스가 높았다. 또한 아동의 출생순위가 첫째,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과 직업이 없고 주양육자가 어머니이고 핵가족에서 거부적 양육태도가 높았다. 아동의 문제행동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낮아졌으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거부적 양육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전기 아동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는 아동의 출생순위, 어머니의 학력, 직업, 주양육자, 가족형태와 양육스트레스이었으며, 이들 변수가 학령전기 아동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를 33.7% 설명하였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거부적 양육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문제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의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거부적 양육태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문제행동과 거부적 양육태도에 조절 혹은 매개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거부적 양육태도뿐만 아니라 수용적 양육태도를 함께 고려하여 아동의 문제행동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PSI)*.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chenbach, T. M., & Edelbrock, C. S. (1981). Behavioral problems and competencies reported by parents of normal and disturbed children aged four through sixtee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6, 1-82.
- Achenbach, T. M., & Edelbrock, C. S. (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VA: University of Vermont.
- Carey, W. B. (1997). Obsessive difficult temperament.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36, 722.
- Choi, Y. H. (1991). *Effects of child temperament on mother-child interaction and on child's behavior problem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Chung, M. J., & Kim, M. J. (2004).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nd their perceptions of parental child-rearing practic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5(5), 11-27.
- Dumas, J. E., & LaFreniere, P. J. (1993). Mother-child relationships as sources of support or stress: A comparison of competent, average, aggressive and anxious dyads. *Child Development*, 64, 1732-1754.
- Fishbein, M., & Aizen, I. B. (1975). *Belief, attitude intens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ssachusetts: Addison-Wesley.
- Ha, Y. H. (2003). The effect of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variables on children's problem behavior.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4(4), 29-40.
- Han, J. H., & Hong, G. O. (2000). Maternal self-perception profile and parenting behaviors.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7, 85-111.

- Jung, T. Y., & Roh, H. J. (2005). Differences between the employed and the unemployed mother she is parenting guilt and behavior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0*, 211-231.
- Jung, Y. A. (2004). *Parenting stress of preschool children's fathers and mot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Kim, J. E. (1974). *The psychology of Korean family*. Seoul: Ehwa Women's Publishing Co.
- Kim, M. A., & Lee, J. S. (2004).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among mothers' characteristics, young children's temperament and maladjustment behavior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4*(5), 145-166.
- Kim, M. Y., Gu, H. Y., Kwon, I. S., Kim, S. O., Kim, T. I., Oh, W. O., et al. (2007). *Growth and development of children and nursing care*. Seoul: Koonja.
- Kim, S. J., & Kim, Y. H. (2007). Review about child rearing attitude of parents. *Korean Parent-child Health Journal, 10*, 172-181.
- Kwon, J. Y. (2007). Parents' perception of very early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as related to parenting stress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14*(2), 1-19.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NY: Sprinfer Publishing Co.
- Lee, J. L., & Lee, J. I. (2008). Maternal acceptance-rejection, parenting stress and mother's perceived childhood treatment. *The Journal of Play Therapy, 12*(2), 17-27.
- Lee, K. O., Hur, S. Y., & Kim, Y. H. (2005). Poorness-of-fit temperament, mother's parenting practice & children's problem behavior. *The Journal of Play Therapy, 9*(2), 1-17.
- Lee, S. E., & Seo, H. (2007). Child's emotional intelligence: Relationship with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child rearing stres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8*(4), 127-144.
- Lee, W. Y. (1984). The relationship of mothers educational view and child-rearing attitudes to child development.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5*, 101-140.
- Lee, Y. H., & Lee, J. I. (2008). The exploration for factors explaining Korean mothers' acceptance-rejection and control of their children at ages of zero to 36 months. *The Korean Society of Women's Culture, 17*, 87-119.
- Lee, Y. Y. (2007). *The effect of father's involvement in child rearing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on marital relationship*.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Park, Y. M. (1996).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aring attitudes of the mother whose children late for school and child's emotional maladjustment behavior. *Th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5*, 49-64.
- Rohner, R. P. (1984). *The warmth dimension: Foundation of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 California: SAGE Publishing.
-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226-235.
- Shin, M. S. (2003).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ing attitude and young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Paichai University, Seoul.
- Tanaka, A. (2001). *Temperamental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on the stress reactions of toddlers in frustrating situatio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nnesota University, Minneapolis.
- Webster-Stratton, C., & Herbert, M. (1994). *Troubled families-problem children: Working with parents: a collaborative process*. Chichester: John Wiley & Sons.